

71st ANNUAL WORLD DENTAL CONGRESS

OF THE
FEDERATION DENTAIRE INTERNATIONALE

November 14 - 20, 1983 TOKYO, JAP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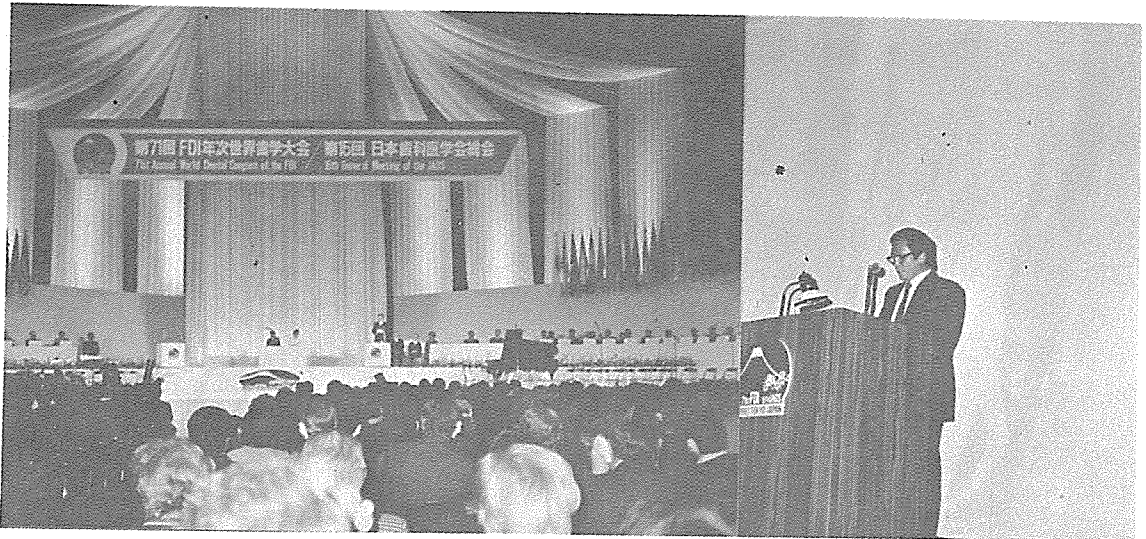


FDI(國際齒科聯盟) 第71回 年次 世界齒學總會는 지난 14일부터 日本東京에 있는 뉴-오오다니"메인 회의장에서開幕되었다. 95個國에서 約 4 千여명 그리고 日本 國內에서 16,000여명, 都合 2 萬여 齒科의사가 參加했다.

우리나라에서도 金東順 首席代表委員과 梁精康 交替首席代表委員을 위시한 129명이 參與하여 國力을 誇示 했다.

특히 15일 午後 3 시부터 日本武道館에서의 開會式에는 日本 四季를 태-마로 하여 各種 藝能과 民謠가 演奏되는 가운데 日本의 皇太子 내외분이 입장하면서 開會式이 시작되었는데 中曾康弘首相을 비롯 山崎日齒會長, 白敷會頭, FDI會長의 式辭가 있었는데 中曾首相은 「世界齒科醫學을 깊히 있고 幅 넓게 交流하여 끊임없는 研究와 討論을 展開한은 眞心으로 意義가 깊으며 훌륭한 成果를 거둘것을 期待한다」는 祝辭가 있었다.

또한 齒協 齒務理事를 歷任한바 있는 玄天燮博士는 世界各國에서 13個 심포지움 가운데 「韓國에 있어서의 齒科保健의 現황과 展望」이라는 演題를 發表해서 큰 관심을 끌기도 했다.



〈제71년차 FDI총회 개최식장의 장엄한 광경, 95개국에서 2만여 齒科의사가 참가했다. 사진右는 前齒協 齒務理事인 玄天燮博士의 심포지움 강연 장면〉



〈FDI會長인 Thorsten Aggeryd박사(스웨덴) 박사와 치협 金東順會長的 감격적인 상봉〉



〈亞太地域 임시代表者會議 場面〉